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 관련,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. [사진 출처 = 연합뉴스]인천의 한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,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.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.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.A씨는 “학대 혐의를 인정하냐”는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좌우로 고개를 저었다.이어 “피해자가 사망할 줄은 몰랐냐. 멍 자국은 왜 생긴 거냐”는 물음에도 침묵했다.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.A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(17)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.그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“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”며 119에 신고했고,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.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었다.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.이와 관련해 교회 측은 “평소 B양이 자해해 A씨가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다”며 “멍 자국도 자해 흔적”이라고 주장했다.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 시신을 부검한 뒤 “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”며 “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”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.B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.B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.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B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 중이다.